

부천시

원종동(면마루) 도당우물 대동제

·
농기고두마리

·
중동 장말도당굿



원종동(먼마루) 도당우물 대동제

1. 전승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 유래 및 해설

원종동 도당우물 대동제는 매년 음력 3월 1일과 7월 1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안동네에서 거행되고 있는 마을의 공동축제이다.

이때는 소머리나 소 한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즉 해방 전까지만 해도 춘기인 3월 1일 대동제 때는 소머리를, 우기인 7월 1일에 거행하는 대동제 때는 소 한 마리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이 마을에는 250여 년 전부터 밀양 손씨, 안동 김씨, 의령 남씨, 인동 장씨, 평산 신씨, 경주 최씨 등 1백여 가구가 주성을 이뤄 우물 하나를

사용해왔는데, 그 우물은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겸해 '도당우물'이라 불렸다.

마을이름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삼태기와 같이 둘러싸여 있어 '멀리 보이는 종과 같은 형태의 마을', 또는 '멧마루·먼마루'에서 연유하였다.

계속 이어내려오던 우물제는, 해방 전에는 한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일제가 꺼려한 데다가 몰래 소를 잡는 밀도살을 못하게 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고, 해방 후에는 대동제를 주관할 만한 사람이 없어 2년여 동안 치성을 드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마을에 화가 닥쳐 마을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어 다시 대동제를 거행하게 되었다.

대동제를 행하는 절차는 다른 곳의 대동제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대동제 당일에는 소를 잡는다든지 또 이 때 제물로 바친 쇠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 수수깡에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우물 앞 미나리밭에 임의대로 꽂아 각기 미나리를 재배하도록 한 것은 원종동 도당우물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더욱이 우물제가 행해지던 6·25사변 때에도 이 동네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궁도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도당우물에 치성을 드린후 대회장으로 떠날 정도로 마을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우물제는 1993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부천시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도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3. 구성 및 줄거리

1) 제주(祭主) 선정

대동제는 춘기와 하기로 나뉘어 일년에 두 번 지낸다. 춘기 때는 음력 3월 1일에 거행하는데 이는 미리 풍년이 들게하여 달라는 예축제적(豫祝祭的) 성격이 강한 의식이며, 하기 때는 음력 7월 1일에 대동제를 거행하는데 이는 김매기가 끝나고 농민들이 한가한 시간을 내어 그간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위한 의식임과 동시에 마을사람들의 친목이 중요한 면을 차지하였다.

제주는 마을 유지들에 의해 생기복덕(生氣

福德)을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제주가 되기 위한 자격은 우선 그의 몸이나 그의 가정에 부정이 없어야 하고, 그의 집안이 상을 당하였거나 부인이 월경 중에 있거나, 그 자신이나 또는 그의 집안 사람 중에서 누가 병환 중에 있으면 안된다.

2) 우물소지 및 주변 청소

이 우물은 마을에 경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제를 올리고, 마을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는 우물을 포장으로 덮어 부정이 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 신성한 존재였다. 더욱이 우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이 우물의 규모는 깊이가 약 6.6m 이고, 직경은 2m 정도의 오각형이다. 처음 안동네에 있다가 오정대교가 신설되면서 길가로 옮겨 보존되고 있다. 예전에는 우물 옆에 멧있는 향나무가 여러그루 있었는데 향나무를 베어 버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일화가 있다.

대동제날 아침에 실시하는 우물소지는 10여 명이 참가한다. 우물소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지를 올리는데 이 때 개인 소원을 빌었다. 특히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가들었으나 득남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우물신(神)에게 득남을 기원하는 희원사상(希願思想) 때문이다. 예전에는 도당우물 이외에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면 화를 입는다고 해서 파지 않았다고 한다.

우물소지에 필요한 도구는 큰 고무통을 잘라 만들었다. 이 통안에 사람이 타고 우물로 들어가 우물바닥을 청소한 후 이 물을 통에 담아 미나리밭에 버렸다.

이 때 우물 주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치성에 임한다.

3) 소잡기

제물로 쓰이는 소는 당일 잡는다. 소를 잡고 제를 지내는 동안은 쇠고기를 한 곳에 모아 두며,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소를 희생으로 삼는 이유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한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더욱 더 풍요를 기원하고자 하는 뜻이 깃들여 있다.

4) 제사

제주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생기복덕한 적합자를 선정한다. 제수는 소나 소머리, 백설기 2시루, 청수, 통북어, 소지 등인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각기 각출한다. 이장은 떡 한 시루를, 유지들은 술을 회사한다. 축문은 마을 노인들이 상의하여 짓는다. 축문을 낭독할 때는 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경청하고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였다.

축문의 내용은 “정천축(井泉祝), 유세차 ○ ○년 ○월 ○일 ○시 유학 ○ ○생 ○ ○ 감고소우 인명생활 유축무환 가문청정 제병양조 청정기원 금후청작 가교”이다.

축문을 낭독한 후 제주가 먼저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소지를 올리고 나면 지역유지들이 소지를 올린다. 이 때 마을 부녀자들이 함께 기원하면서 치성을 들인다. 소지가 끝나면 잡은 쇠고기를 끓여 온 동네사람이 모여 피로도 풀고 그간의 농사작황 및 덕담을 주고 받는 음복이 행해진다.

5) 쇠고기 나누기

새끼를 꼬아 쇠고기를 마을 가구수에 맞추어 나눈다. 넉넉한 집안은 8근 정도에 해당하는 한 메를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2집 내지 몇 집이서 함께 한 메를 가져간다.

이 때는 출가했거나 출향한 사람도 함께 와서 쇠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6) 미나리깡에 수숫대 세우기

쇠고기를 나눈 후 수숫대에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즉 어느 한 사람이 수숫대에 호주의 이름을 적어 임의대로 미나리깡에 심어 놓으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의 소유가 된다.

7) 미나리 심기

미나리는 하루에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대동제 당일부터 시작하여 2~3일 사이에 심는데, 주로 이 일은 부녀자들이 담당하였다.

미나리깡에 마을사람이 모두 미나리를 심는 이런 의식은 마을의 대동단결과 협동심을 양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행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원종동만의 독특한 행위이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미나리를 심을 때 다른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불려지던 농요가 이곳에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부르지 않았다는 부녀자들이 많았다.

8) 뒷풀이

경기농악(웃다리 농악) 이 주가 된 농악놀이로 뒷풀이를 한다.

9) 우물제가 있는 음력 3월 1일과 7월 1일에는 각 가정마다 굿을 했던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굿은 우물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안 뿐만 아니라 해당 가정에도 똑같은 영향을 행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해졌다.

농기고두마리

1. 전승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

2. 유래 및 해설

음력 7월 15일 백중날(백중일) 에는 농사일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과일과 채소가 난다.

이러한 새로운 과일과 채소를 조상의 신령(神靈)에 천신(새로 나는 물건을 먼저 신위에 올리는 일) 하는 풍속이 있다. 이 때 장(場)이 서는데 이것을 백중장(百種場) 또는 백중장이라 한다.

부천의 경우는 일제시대 이곳에 축산협동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시장(牛市場, 소사구 심곡 본1동사무소 부근에 있다)가 소사구 소사본동 도원극장 부근으로 옮김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소사구



십곡본동 소사극장 부근과 그레이스 쇼핑 뒤 (현 자유시장) 에 백중장(백중장) 이 형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곳에서 거래된 품목은 포목류, 제재류, 야채, 방물류 등이었다.

백중장(백중장) 에는 한여름을 농사일에 애쓴 농군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장터에서 서로 만나 여름동안 지낸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한다. 백중날을 전후하여 여름동안 논을 매고 김을 매는 데에 중요한 연장이던 호미를 잘 씻어서 다음 해의 준비를 위하여 깊숙이 보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의식을 ‘호미를 씻는 연회’라 하여 세서연(洗鋤宴) 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농사가 일단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술을 빚고 떡을 하며,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농사 일에 힘쓴 농부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두레를 축으로 농사를 짓는 고장에서는 농악을 치며 흥겹게 놀고 난 다음 이 농악기도 역시 손질하여 잘 보관한다. 이런 모든 조치는 금년 농사의 준비가 끝났으므로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 때 부친평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정형화된 농악놀이의 한 형태인 농기고두마리(일명 상좌다툼놀이) 가 행해졌다. 이웃상호간의 친목과 유희를 갖는 이 놀이는 다른 지방에서도 거리별 내용은 다르더라도 농기뺨기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놀이이다.

그러나 농기고두마리는 부친군이 탄생되고 얼마되지 않은 1920년대 부터 서서히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에는 전혀 원형을 찾아 볼 수 없었고, 부친이 완전히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 일부 마을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왔다. 현재는 자료로 밖에 남아 있지 않다가 1994년 예전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여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구성 및 내용

1) 논길을 타고 동서 양쪽 마을 농악대가 농기를 앞세우고 춤을 추며 등장한다.

2) 농기가 양쪽으로 갈라서며 그 사이에 제금(동발) ,호적(날라리) ,징잡이가 농악놀이 마당을 향해 선다.

3) 마당으로 들어서며 양쪽 마을 농악군은 동서로 갈라져 원을 그린다.

4) 그사이 상좌마을 상좌와 양쪽 마을 호미를 든 농군이 마당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다른 농악소리는 그치고 상좌와 뺨과리 소리에 맞추어 풍년을 기리는 노래가 진행된다.

(뺨과리 장단에 맞춰 일동)

에에하하 에에호호아아우 아아우 후후--

(상좌) 식전 아침 찬 바람에

(일동) 에에에 농부야 들어봐라.

(상좌) 우리같은 농부들은 하나님 조화로서 불같이 더운날에 농사짐을 지는구나

(일동) 오오오 에에히히히 에에에야 어기야.

(상좌) 쿵쿵질사 방해(아) 로다. 오늘날 자란 모의 일년초 크는 몸은

(일동) 이에 그리 덧 없이도

(상좌) 하루하루 달라지니 일년초야 덧 없이도 어이야 사나 지루하네.

(일동) 어이야 후야 지루하네

(상좌) 잘한다 못한다고 뉘한래 원망할고,가이 없는 이내 일신 농부가 되었거든 가지 말러라 에에.

(일동) 어이야 후야 지루하네. 아우야 후야 지루하네.

5) 노래가 끝나면 상쇠가 팽과리를 치며 앞서 논으로 향한다.

6) 일동 '와' 소리치며 양쪽 논으로 나누어 들어간다.

7) 상쇠 논머리에서 팽과리를 친다.

8) 농군들 논매기를 시작하면서 어~허 어 두 상사뒤에 노래하면

(상쇠) 여기라 산아나로고나.

(일동) 허~어 허~어

(상쇠) 걸렸구나 걸렸구나 남산 위에 청치맷 자락이 검고도 검었구나

(일동) 어여루 상사디여 어여루 상사디여(이 부분만 빠른 속도로)

9) 농군들 논매기 끝맺고 논에서 춤을 추며 나온다.

10) 농군들 4)와 같이 원안으로 들어가며 호적 등을 그치며 상쇠가 팽과리를 친다.

(일동) 어이야 후야 지루하네/어이야 후야 지루하네

(상쇠) 이때는 좋은 떼데, 부모님은 어에 그리 검은 머리 백발되어 날 나두고 어딜가나, 이 때를 잊으시면 어느 때를 지내시나

(일동) 우우에이야 어기야/쿵쿵절사 방해(아)야

11) 농악소리 요란한 가운데 지난 해 상좌다툼에서 진 마을 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상을 차려서 논 쪽으로 놓는다. 제주는 상좌마을 사람이 된다.

(상좌측 상쇠) 근동 사람들이 이내말 들어보소, 우리 모두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세.

(일동) 여으이-

12) 농악은 중지되고 양쪽 마을 사람들 제상 앞으로 오고 농악군들 양옆으로 도열한다.

농기는 그 자리에 숙연하게 서 있다.

상쇠 꿇어 앉는다. 우집사격인 자가 술을 따라 상쇠에게 건넨다.

상쇠 술잔 받아 제상에 놓는다.

13) 재배하고 엎드려 있으면 축문을 낭독한다.

“유~세차 ○ ○○월 ○○삭 ○일 ○○유학 ○○○감고소우 ,수불제신 해산지동 유령소지 호청려한 여좌여우 구제역려 가분와매 유도사 용 유치사격 소화남경 이안차화 귀차유생 숙비 신원 자용 존 공전 건고 상향”

14) 축문이 끝나면 일어나 다시 우집사에게 술을 주고 상쇠가 받아 놓고 재배한다.

15) 제사가 끝나면 제상을 패자 마을사람들이 가지고 나간다.

마을 제사가 끝나면 네 벌매기도 끝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도 올렸으니 농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상좌다툼놀이를 시작한다. 먼저 양쪽 마을이 서로 마주 보고 상견례를 한다. 상견례 의식은 지난 해에 진 마을에서 상좌마을에 문안하는 형식으로 농악을 치며 한 두 발 앞서가 허리를 굽히는 것으로 끝난다.

그 답례로 상좌마을에서는 선 자세로 풍악만 친다. 이러한 과정은 평택과 익산지방에서 행해진 기세배와 유사하다.

기세배는 미리 정해 놓은 서열에 따라 질서

있게 세배를 올리는데 일정한 정도로 굽혀 (평택은 15도 정도, 익산은 45도 정도) 절을 하면 4~5도 정도 혹은 10도 정도의 답례를 한다. 이 때 절을 받는 동네사람들은 더 굽혀라고 소리치며 때로는 기를 누르려고 한다. 반대측 사람들은 더 이상 못 굽히게 야단을 치며 서로 농악대를 동원하여 응원을 한다.

농기고두마리도 기세배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오리라 본다. 상견례가 끝나면 양쪽 마을은 농악대의 응원하에 농기와 농기를 한 가운데서 맞서게 하고 농기 쓰러뜨리기 싸움을 벌인다.

16) 농악이 울려 퍼진 가운데 양쪽 마을 농악대는 거리를 좁혔다 물러섰다 두 번 반복한다.

17) 농악대 간격을 벌린다.

18) 농악대 가운데로 나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 선다.

기 양쪽에 중심 잡이도 따라 나온다.

19) 서서히 다가서서는 농기와 농기가 맞고 상대편 기를 쓰러뜨리는 경기를 하지만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한다.

이러한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세 번째 맞부딪혀 실랑이를 벌인다.

한쪽 기가 땅으로 넘어질 때 상대편 상쇠가 기봉을 뽑는다. 이 때 기봉은 연을 가운데 두고 주위를 장기털로 감아 만들었다.

농기고두마리의 경우 농기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20) 농악이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 승자가 판가름 나면 이긴 쪽에서 고향을 지른다.

21) 패자측 농군은 땅에 풀썩 주저앉는다.

22) 패자측농군들 짚신을 벗고 땅을 치며 분해한다.

23) 상쇠 신나게 팽과리 치며 빙빙 돌면 농군들은 뒤따른다.

24) 상쇠가 우뚝 서면 상쇠를 중심으로 농군들 빙 둘러선다.

(상쇠) 쿵쿵절사 방해(아) 야. 국 나온다. 국 나온다. 들치 버섯 국 끓이고 술국이 나오는 구나.

(농군) 에에야 어기야 허어 두어 허고.

25) 패자측에서 음식상을 차려 나와 승자가 된 상좌측을 향해 놓으면 상좌 상쇠를 위해 패자측 부쇠가 술을 따라서 잔을 올린다.

26) 상좌 상쇠가 받아 마신다. 상좌측에서 함성을 지르면 패자측 농군들은 계속 땅을 친다.

27) 술을 마신 상좌측 상쇠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패자측 부쇠가 술상을 물린다.

(상쇠) 인근 마을 농부들아, 이배 말을 들어보소,올 해 농사는 대풍이래오. 우리 함께 어울려 한 마당 신나게 놀아 보세.

28) 양측 농군들 소리치며 함께 시작할 때와 같이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돈다. 상좌가 된 마을이 한마당놀이를 하고는 내년을 다시 기약하자고 패자측을 위로하면 패자측 농악군과 마을 사람이 모두 일어나 농악을 치며 함께 어울어져 놀다 양쪽 마을로 향해 떠나면서 끝난다.

중동 장말도당굿

1. 전승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통 지역

2. 유래 및 해설

30여 년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격년에 한번 음력 시월 상달에 행해졌던 부천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장말도당굿이 1991년 11월 15일(음력 10월 10일 기축(己丑)) 과 1992년 4월 15일, 그리고 1993년 11월 23일에 행해졌다. 이 공연은 장말 도당굿의 행위자인 조한춘(趙漢春, 1995년 현재 77세) 과 오수복(吳壽福, 1995년 현재 72세) 이 1990년 10월 중요 무형문화재 98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91년 제 7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



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부천 문화원이 주최하고 장말도당굿보존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장말도당굿은 1980년 마지막이라고 여겨졌던 대대적인 공연이 있은후 1982년 1990년, 그리고 1991년 11월 15일, 1992년 4월 15일, 1993년 11월 23일, 1994년 10월 29일 등 1990년 이후 매년 열다섯 거리(가조:歌調)의 굿이 이틀에 걸쳐 공연되었다.

부천에서 언제부터 도당굿이 행해졌으며 도입 경로는 어떠한지 그 내용은 정확한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장말도당굿은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조상신(祖上神) 숭배가 발전하여 지연적(地緣的) 성격을 지닌 당신(堂神)으로 발전한 것으로, 다른 지방과는 다르다. 즉 덕수장씨 집안 제사의 집행자는 타성 유입으로 말미암아 마을 공동축제 성격의 당신제사(堂神祭祀)로 바뀌면서 무속인이 가세하여 의례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제자와 무속인은 도당굿을 행한다는 목적은 같으나 구조나 종교적인 내용면에서는 별개의 것이다. 장말도당굿은 도당할아버지와 무속인이 함께 굿을 진행하는 것과 그 거리별 내용이 경기도의 다른 지방에서 행해진 마을 공동체로서의 도당굿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더욱 더 주목된다. 아울러 무속이 접목된 제사의식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의(祭儀)를 통하여 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제의가 행해졌던 사회상을 조감할 수 있는 것이다.

도당굿이 행해진 장말은 현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통 지역으로, 중동의 3만 3천여 명의 인구중 2.5%에 해당하는 약 8백여 명이 살고 있으며, 마을 명칭의 원인이 된 덕수장씨의 시조 순룡(順龍)의 12세손인 몽기(夢

起)가 4백여년 전 경기도 평택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부천은 부평도호부에 소속되어 발전하고 있던 시기로 이미 오정구 고강동과 소사구 계수동 등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 두지역보다 조금 늦게 형성된 장말은 부평의 15개면 중 하나인 석천면(石川面: 돌내면)이라 불리면서 발전해왔다. 덕수장씨의 장말 정착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로, 평택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부천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경지때문이다. 유입 초기의 상황을 설명하듯 장말에는 임진왜란과 관계 있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장말도당굿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민지시대 때 기존 당집을 헐고 다시 지었는데 그 때 허문 자리에서 조그마한 쇠말뚝이 하나 나왔다고 노인들은 전한다. 그 말은 묘하게도 한 쪽 다리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임진왜란 때 이 마을에 살던 장씨 장군이 왜군이 놓은 덫에 치여 장군과 말의 다리가 부러져 잡혔기 때문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도 도당굿을 할 때 도당을 모시는 도당할아버지는 다리 하나가 없는 흉내를 내는 외다리 춤을 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성격의 도당굿이 장말에서 행해지고 있다. 장말은 1982년까지만 해도 두 개의 당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지금은 하나 밖에 보존되지 않고 있다. 당시 당(堂)은 장말 동리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당은 마을 입구에 석적, 신수(神樹), 신간(神竿) 등을 세운 성스러운 장소이다. 애초에는 신당(神堂)과 신체(神體)를 겸했던 당나무에 조그만 건물이 생기기 시작해서 신목(神木)과 신당이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신당이 커지고 신목이 노후

해서 없어지거나 비중이 작아져서 점차 망각되고 당 건물 내부에서 당 건물과 새로운 수요에 따른 신가 신령 신기 무신도 신위패 등의 신체가 분화하고 형성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말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범양아파트뒤에 당이 있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150여 미터 떨어진 예전 할아버지당이 있던 제일교회 뒤에 당나무가 있다. 처음 당나무가 먼저 생기고 당이 지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있는 당나무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해진 당나무와 교체된 것 같다. 그리고 당은 처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곳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 당의 오른쪽에 가로 4미터, 세로 2.5미터 가량의 큰 바위가 있다. 바위는 신목으로 대표되는 수목송배와 함께 자연신에 인격화된 신이 내재하는 암석송배의 대상이다. 이 바위는 청동기시대의 묘재인 고인돌일 가능성이 있는 돌팡구지로 불리는 할아버지당(큰당, 웃당)이다. 고인돌로 보는 이유는 원래에는 받침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돌은 단순히 무덤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마을 주민의 믿음의 대상(토테미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성 및 내용

장말도당굿은 그 거리별 내용이 경기도의 다른 지방에서 행해진 마을공동체로서의 도당굿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00년대 초 일본인 적송지성(赤宋智城)과 추엽옹(秋葉隆)에 의해 조사된 《조선무속(朝鮮

巫俗)의 연구(研究)》에 보면 장말도당굿을 도맡아하던 이용우(李用雨)의 고향인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열두 거리가 행해졌으나 장말도당굿은 열다섯 거리가 행해진다.

도당굿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옛 밤 감 등을 파는 상인들에 의해 난장(亂場)이 섰다. 도당굿을 일명 ‘고창굿’이라 하는데 ‘난장판’을 말한다. 장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전에는 난장이 서고 멀리에서도 장말도당굿을 구경하러 왔다고 한다. 이 때는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무시루떡과 막걸리를 대접했으며 윗어른들을 특별히 더 공손하게 모시기도 했다.

장말도당굿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지방의 도당굿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순서의 차이이다. 장말도당굿의 순서가 당주굿 부정굿 도당모셔오기(수목송배와 암석송배가 융합된 거리) 돌돌이 장문잡기 시루말 제석(추수감사제의 의미가 깊은 거리) 터벌림 손굿 구녕굿 중굿 도당할아버지·도당할머니 굿 도당모셔들이기 뒷전 등인데 비해, 오산의 경우는 부정 시루말 제석 손굿 군웅청배 조상 안당굿 성주풀이 선왕굿 계면굿 터주굿 마당굿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한편 시흥시 포동(浦洞: 새우개 마을)의 도당굿 순서는 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가미되어 부정 시루돋움 뿔뿔이 산(山) 바라기 공구리 제석굿 군웅굿 손굿 양푼떡기 뒷전 왕당대 올리기 등 열한 거리고 진행된다. 장말도당굿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포동보다 오산 출신 이용우 등에 의해 진행된 관계로 오산의 도당굿과 내용이 유사하면서도 도당모셔오기와 꽃반에 부채세우기 그리고 장문잡기 등 다른 지방에서는 장말만의 독특한 거리가 있는데 이는 문화전통과 생활상을 반영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 사회상과 전통이 다름을 나타낸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마을 신이 지역 중심의 신이기 때문에 혈연성이 약하나 장말의 경우는 혈연성이 강한 덕수장씨의 조상신 숭배가 발전하여 지연적 성격을 지닌 당신(堂神)으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조상은 자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혈연관념이 기초가 되어 있다. 또 제사라는 의례를 통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종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민속놀이와 의례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장말의 경우 이러한 공동의 조상신을 가졌기에 응집력을 바탕으로 공동화합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장말도당굿은 곧 덕수장씨라는 토성을 바탕으로 행해진 마을 공동의 축제이며 추수 감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장씨 집성촌에서 출발했으나 이것이 발전하여 타성이 유입되었음에도 이를 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지역신으로 승화할 수 있었음은 장말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사악함을 물리치는 벽사신앙적 요소도 있었다. 이는 타성일지라도 장말에 살고 있음에 대한 자긍심과 아울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밀감과 일체감을 갖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순수한 개인의 이해는 개입되지 않았으며 신령제사를 공적 의례(公的儀禮)로 귀속시키고, 나아가서는 모든 의례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여 결국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례와 사회적 관습을 같은 것으로 보도록 만들었다.

장말의 마을신은 처음 마을을 개척한 덕수장씨의 시조가 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신이 지닌 속성은 위대함과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이후 마을신은 마을에 재앙이 생겨남에 따라 재앙이 되는 신을 진혼하는 성격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즉 원통한 혼령이 공통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진혼하고자 추가되어 마을신으로 모셨다는 것이며, 도당신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므로 무속이 신봉하는 여러 신들을 모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업적인 무속인이 장말도당굿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도당할아버지가 남성이기 때문에 도당굿을 행하는 무당도 만신(여자 무속인)이 아닌 산이(남자 무속인)가 보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천의 다른 지역인 깊은 구지(심곡 본1동)와 넘말(중동 일부), 상동 역곡동 고강동 대장동 등에서도 도당굿이 행해졌으나 유지되지 못하였거나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고강동 역곡동을 제외하고 이들 지역은 장말의 덕수장씨와 같은 집성촌을 이루지 못하여 혈연에 기초한 공동의 조상신이 없었고, 이로 인해 응집력 결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삼한(三韓)의 소도(蘇塗)처럼 성스러운 장소이며, 굿을 진행하던 당집이 남아 있지 않은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 지역에서는 도당굿 자체가 소멸되거나 변화하여 '마을번영축제' 또는 '대동산신제'라는 명칭으로 단순히 고사를 지낼 뿐이다.

